

머리말

—생츠했리교회 측의 주장은 「반대파」와 같은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본부는 반통일교회 활동을 해 온 이른바 「반대목사」의 비판에 대하여 오랫동안 대응해 왔는데, 최근 참아버님이나 교회본부를 비판하는 「생츠했리교회」측의 주장을 보면 그 내용은 반대파가 해 온 비판 및 언행과 이상하리만큼 비슷하여, 같은 “영적 배경”을 느끼게 됩니다.

① 교주가 음란하다?

반대목사들은 오랫동안 「문선명은 “피가름”을 하면서 6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60마리아가 있다」는 등 교주를 비판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신자를 탈퇴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6마리아』니 뭐이니 하는 박정화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말씀선집 306—241)라고 말씀하시며, 6마리아를 부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절대 모델성 완성을 위한 그 삶」(『평화신경』 220쪽)이었다고 회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6마리아의 비극』의 저자인 박정화 씨는 그후 저서 『나는 배신자』에서 『6마리아의 비극』의 내용은 조작이며, 허위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각지에서 보고회를 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츠했리교회에서는 「6마리아」가 당연히 있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언동은 반대파의 비판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6마리아」를 말하는 그들의 언설은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순결」에 대한 가르침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② 「한풀이」가 동기가 되어 있다?

반대목사들은 참아버님을 비판할 때 「문선명은 일본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동기로 일본 사람에게 고액현금을 요구하는 등 한풀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님은 일본의 장래를 생각하고, 일본의 번영을 소원하셨으므로 반대파의 비판은 완전히 얼토당토 않은 것입니다.

최근 생츠했리교회 측이 하는 참아버님 비판으로 「어머님은 아버님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있으며, 그 한풀이를 하려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며, 반대파의 수법과 비슷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받아 들이고, 원수를 감싸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참아버님은 「어머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어머님으로서 자기의 책임분담을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마운 것입니다」(「패밀리」 2006년 9월호, 31쪽)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님께서 언제나 「원수관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생활해 오셨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③ 말씀과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2천년 전 유태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을 비판할 때, 「성서(구약성서)의 율법과 모순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서의 성구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등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반대목사는 「통일교회(현 가정연합)는 성서(신약성서)의 복음과 모순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구의 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등, 같은 양상의 비판을 전개하여 신자를 탈퇴설득해 왔습니다.

최근 생츠퍼리교회 측이 하는 비판도 「어머님과 가정연합 본부는 아버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8 대교재교본 『천성경』 (성약성서) 까지도 폐기하고, 그 가르침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사실에 반하는 말을 하는 등 「가정연합에서 빨리 탈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반대파가 해 온 탈퇴설득 수단을 방불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④ 교회 간부는 부패 - 타락해 있다?

반대파는 「통일교회 간부는 공금횡령을 하고, 자기 보신하는 저속한 인물이 많다」고 하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 비판을 진짜라고 받아들여 탈퇴하여 본부에 「탈퇴서」를 우편으로 보내온 전 신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생츠퍼리교회 측이 하고 있는 가정연합 본부의 비판은 놀라울 정도로 이 반대파의 수법과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납치감금을 동반한 탈퇴설득사건이 부쩍 줄어들어, 효과적으로 “하늘의 섭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반대목사의 배후에 있던 “영적 배경”이 이제 「생츠퍼리교회」측 사람들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하늘의 섭리를 지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파는 전술한 것같이 비판 내용을 「납치감금」이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신자를 탈퇴시켰습니다. 그러한 것과 같은 내용, 같은 수법이 참자녀님이라는 “내부”를 가장하여 지금 우리에게 소리없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어한다”고 하는 내적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납치감금」에 의한 탈퇴설득법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갖고 신자를 탈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무후무한 참부모가 현현한 시대가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400~2401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참부모님, 즉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이야말로 유일의 「참부모」이며, 유일의 구세주입니다. 그 유일의 「참부모」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생츠퍼리교회 측의 교묘한 수법은 사탄의 수법 그 자체입니다.

지금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신 참아버님의 말씀에 반하여 그들은 자녀님을 「제 2의 참부모」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그리스도」「거짓 참부모」가 되어 통일원리를 가르치고, 참부모님의 말씀의 진수인 「참부모」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원리집단 「생츠퍼리교회」등의 언동에 현혹되어 “전무후무”한 참부모님이신 「문선명·한학자 양위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들은 충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천일국의 「절대중심」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 참아버님의 소원은 통일원리, 참부모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참부모」가 현현하신 것을 74 억 인류에게 알려 참아버님을 중심으로 “가르침의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2017 년 2 월 9 일

목 차

머리말 / 1

1 생츠했리교회를 지지하는 이호택 씨 언설의 잘못 / 4

- (1) 이호택 씨의 언설「아브라함, 이삭, 야곱노정을 가는 참아버님이다. 그후 요셉노정을 가는 것이 형진 님이며, 나아가 에브라임노정 가는 것이 신준 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해 예정되어 있다」의 잘못 / 4
- (2) 이호택 씨의 언설「야곱이 90 세 때에 요셉이 애급의 총리대신이 된 것처럼 참아버님은 90 세 때에 30 세의 형진 님을 상속자로 세우셨다」의 잘못 / 6
- (3) 이호택 씨의 언설「요한계시록 11 장을 보면 참아버님께서 93 세에 성화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의 잘못 / 7
- (4) 이호택 씨의 언설「청평 역사가 1995 년부터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통일교회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끔 되었다」의 잘못 / 8
- (5) 이호택 씨의 언설「성서 가운데 메시아가 죽은 후에 여성이 상속하는 것에 대하여 써여 있지 않다. 참아버님은 여왕이 아니다」의 잘못 / 9
- (6) 이호택 씨의 언설「아버님께서 2013 년 1 월 13 일을 기원절로 정하신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심판까지 1656 년이며, 그 연수에 한국 역사의 단기를 플러스하면 6001 년이 되기 때문이다」의 잘못 / 11
- (7) 이호택 씨의 언설「아버님께서 청평의 210 대 조상해원을 지시하신 것은 홍수심판까지 210 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담까지 올라가면 220 대까지밖에 안 되는데 청평이 420 대 해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의 잘못 / 12

2, 생츠했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 14

- (1) 「메시아」와 「참부모」의 개념에 대하여—참아버님도 메시아다 / 14
- (2) 「메시아의 혈통은 문 씨이지 한 씨가 아니다」라는 비판에 대한 응답—부정확한 “혈통” 이해에 근거한 비판 / 16
- (3) 독자의 「축복식」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혈통전수는 부모만의 특권 / 18
- (4) 「참아버님은 참아버님과 일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19
- (5) 「참아버님은 완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21
- (6) 참아버님이 참아버님의 의자에 앉으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21
- (7) 사위기대의 그림에서 아담과 해와의 위치가 역전하고 있는 문제—이것은 주관성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22
- (8) 「나를 교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내가 결심한 것입니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 24
- (9) 8 대교재교본 『천성경』을 고쳤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 26
- (10) 「성혼문답」을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27
- (11)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늘아버지」에서 「하늘부모님」으로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28
- (12) 천일국 국가를 바꿨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0
- (13) 「천기원년」을 「천일국원년」으로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1
- (14) 「성서 가운데 메시아가 죽은 후에 여성이 상속한다고 쓰인 곳이 없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3
- (15) 「2013 년, 기원절 축복 반지에 어머니의 이름만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4
- (16) 「한남동의 부모님 사진을 전부 내리고 어머니 사진만 걸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 34
- (17) 「가정연합」마크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응답 / 36
- (18) 기타 비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참아버님의 의향 / 36

1.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이호택 씨 언설의 잘못

2015년 7월 28일자로 일본통일교회(현 가정연합) 전 회장, 에리카와 야스에 씨가 「탈회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문형진님을 중심한 미국 생츠퍼리교회 하의 일본 생츠퍼리협회 총회장 겸 협회장으로 출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생츠퍼리교회는 참아버님의 말씀과 전통이 참어머님에 의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어머님께서 하시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은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같이 세워 오신 승리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참부모님을 중심한 통일가의 일체화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지면관계상 문자 수를 제한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것은 「참부모님 선포 사이트 (<http://trueparents.jp/>)」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성장연구원)

注 : 본문 가운데 참부모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인용은 바탕색을 깔아 구별하고 있습니다.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이호택 씨(3만쌍, 천정궁 박물관에서 6년간 근무)가 2015년 7월 14일에 「**섭리적 동시성으로 본 위기적 상황과 그 대책**」이라는 동영상 공개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그는 「**형진님을 중심으로 축복가정이 하나 되어 섭리를 진행해 가지 않으면 세계에 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참부모님을 「절대중심」으로 가야 할 하늘의 말씀에 대하여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천국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양을 닮은 세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것이다」(49~50쪽, 56쇄:표준형서)라고 써어 있는 것처럼 **참부모님을 중심한 이상세계인 「천일국」**을 되찾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섭리입니다.

이호택 씨는 말씀중심주의를 가장하고 있는데, 그 언설에는 잘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이호택 씨의 언설 「아브라함, 이삭, 야곱노정을 가는 것이 참아버님입니다. 그 후 요셉노정을 가는 것이 형진님이며, 나아가 에브라임 노정을 가는 것이 신준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의 잘못

복귀섭리역사에 나타난 중심인물들이 간 노정을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가는 모의 노정, 상징노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바른 섭리관입니다.

그런데 이호택 씨는 야곱노정이나 요셉노정을 메시아에 맞추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자녀님에게도 꿰맞춰, 메시아가 가는 노정 이후의 섭리를 하나님이 미리 자녀님에 대하여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노정

을 가는 것이 참아버님이며, 형진 님은 야곱노정의 연속으로 애급에서 간 요셉노정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원리강론』은 요셉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그(요셉)는 30 세에 애급의 총리대신이 된 후에……그의 형들과 그의 부모가 애급으로 찾아와 굴복한……. 요셉의 이러한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사탄세계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통하여 30 세에 만왕의 왕으로 군림한 후에, 전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선조까지도 굴복시켜 가지고, 그들을 사탄세계로부터 분립하여 하늘편으로 복귀시킬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처럼 요셉의 전생애는 바로 예수님의 모의자로서의 걸음이었던 것이다」(319 쪽)

물론 야곱노정도 요셉노정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간 모의노정이었고, 야곱노정을 예수님이 가고, 그 후 예수님의 상속자가 요셉노정을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아가 요셉도 그들 모두의 노정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가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노정, 상징노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기독교의 불신으로 고난의 노정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2001 년 4 월 18 일, 「미국 50 개주 순회강연」에서 미국 목사가 참부모님과 하나 된 승리기준이 섰을 때, 재림주가 가는 길에 대해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거짓 부모로부터 피살을 받음으로써 망국의 환경이 되어 버린 사탄세계의 영계와 육계를 어떻게 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리해야 할 책임을 진 “참부모”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처럼 수천년간 걸려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1 대에 완성할 수 없었으므로 (선생님) 일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패밀리」 2001 년 6 월, 9 쪽)

「역사를 1 대에 해결해야 됩니다. 1 대에 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대가 아닙니다. 선생님 1 대에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가정이 1 대에 승리하지 못한 것을 역사적으로 총탕 감해서 선생님 1 대에 정비해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동, 13 쪽)

참아버님은 「아담이 1 대에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1 대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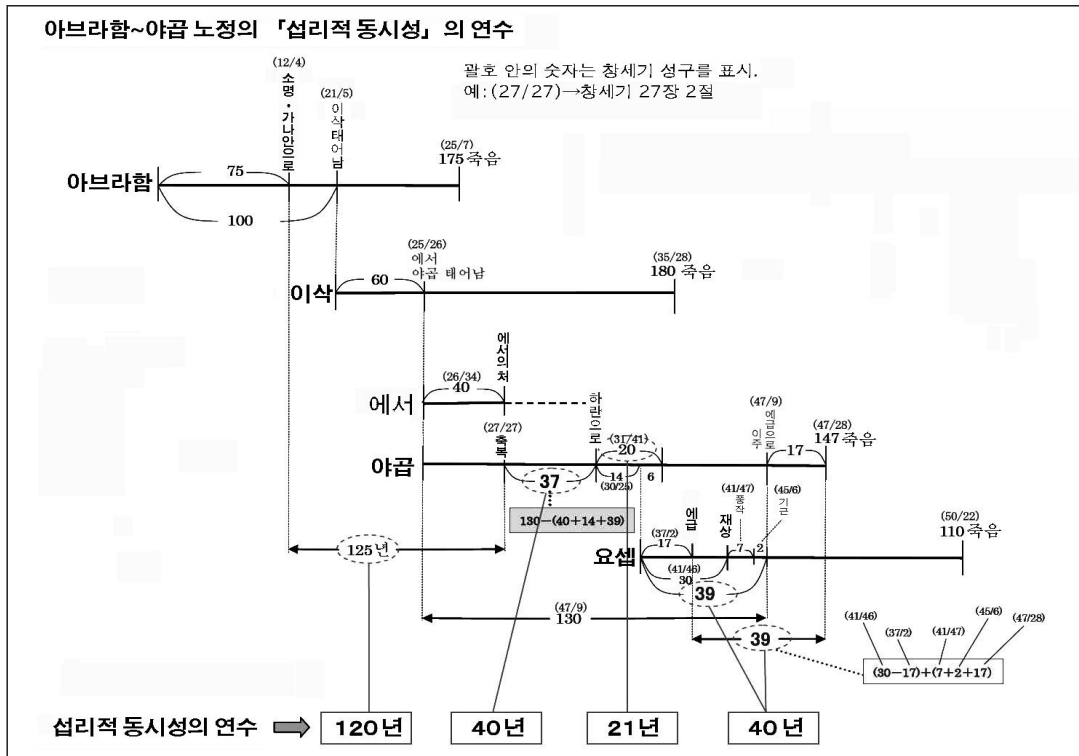
또 종말이란 『원리강론』에 써여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선악교차 때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강림하신 “한 점”에서 교차하는 것이지, 몇 대에 걸쳐서 하는 섭리는 아닙니다. 바로 참아버님이 「1 대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몇 대가 아닙니다」라고 명언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노정을 참아버님이 가시고, 이어서 요셉노정을 형진 님이 간다

고 하는 이호택 씨의 섭리관은 완전히 잘못이며,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의 내용에 반하는 것입니다.

(2) 이호택 씨의 언설 「야곱이 90 세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처럼 참아버님은 90 세 때에 30 세의 형진 님을 상속자로 세우셨다」의 잘못

이호택 씨는 「야곱이 90 세 때 요셉이 30 세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처럼 아버님이 90 세 때에 30 세의 형진 님을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말씀이나 성



【120년】

아브라함은 75 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창 12/4), 100 세에 이삭을 낳았다 (창 21/5). 이삭은 60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창 25/26), 그리고 에서는 40 세에 결혼 (창 26/34). 그 직후 야곱은 축복 받는다. $(100-75)+60+40=125$ 년

【40년】

야곱이 40 세에 축복을 받았을 후의 에서와 대립기간 40년이라는 계산 방법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130 세 (창 47/9) 였다. 그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한 14 년이 지났을 무렵 요셉이 태어났다 (창 30/25). 그 요셉은 애굽에 팔려 30 세에 재상이 되어 (창 41/46), 풍작 7 년 (창 41/47) 후에 기근 2 년째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다 (창 45/6). $130-(40+14+30+7+2)=37$ 년

【21년】

야곱은 외숙부 라반을 20 년 봉사했다 (창 31/41). 고역을 마친후 21 년째 가나안으로.

【40년】

①애굽 이주까지 준비기간 40 년이라는 계산은 요셉 탄생 때부터 준비기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애굽에 팔린 요셉은 30 세에 재상으로 (창 41/46). 풍작 7 년 (창 41/47), 기근 2 년째에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 (창 45/6). $30+7+2=39$ 년

②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부터 준비기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17 세에 팔린 요셉은 (창 37/2), 30 세에 재상으로 (창 41/46). 그 후 풍작 7 년 (창 41/47), 기근 2 년째에 야곱은 일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 (창 45/6). 야곱은 17 년간 애굽에서 생활하고 (창 47/28), 종족기반을 정착시키고 죽는다. $(30-17)+(7+2+17)=39$ 년

서의 연수에 아무런 근거도 갖지 않는 잘못된 언설입니다.

성서의 창세기에 기술된 연수는 『원리강론』에 「상징적 동시성시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낸 연수입니다. 성서(창세기)에 써어 있는 연수를 그대로 계산하면 상징적 동시성인 120년, 40년, 21년, 40년이라는 수리적 기간이 나옵니다. 【7쪽의 「아브라함 ~ 야곱노정의 『섭리적 동시성』의 연수」를 참조할 것】 즉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 120년이며, 야곱도 에서와 대립기간이 40년. 야곱이 하란에 가서 고역하는 기간이 21년, 야곱이 가난으로 돌아온 후 애굽에 갈 때까지 40년이 됩니다.

성서에 나오는 연수에 의하면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나고, 나아가 야곱이 97세 때 가난 땅으로 귀환하여 130세 때 애굽으로 이주해 147세 때에 죽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야곱이 21년간 하란 고역노정을 마치고, 가난한 땅으로 귀환하여 형 에서를 굴복시키고, 실체기대를 승리한 실체의 연수는 40세였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년이 지나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덴동산에 있어서 가인 아벨관계를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한 것은 40세 때였습니다」(「패밀리」1996년 6월호, 37쪽)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성서)에 적힌 연수는 어디까지나 섭리적 동시성에 근거하여 역사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21년의 하란고역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실제의 연령은 60세에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택 씨는 「야곱이 60세 때 요셉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참아버님이 60세 때 형진 님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성서)에 나오는 상징적 숫자로 계산해도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났다는 계산이 됩니다.

결국 참아버님의 말씀으로 보면 성서에 적힌 연수로부터 보더라도 이호택 씨의 언설은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호택 씨가 주장하는 「야곱이 90세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것처럼 참아버님은 90세 때에 30세의 형진 님을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언설은 말씀이나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3) 이호택 씨의 언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참아버님께서 93세에 성화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의 잘못

이호택 씨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 「참아버님께서 93세에 성화하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는 아버님께서 2009년 90세에

30 세의 형진 님을 상속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로부터 3 년반 기간인 42 개월이 지난 93 세에 성화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원리강론』은 이호택 씨가 인용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 장 2 절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10 장 11 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성구를 재림주가 「원리」를 해명하여 발표하실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참조 : 145 ~ 146 쪽) .

또 『원리강론』은 이호택 씨가 인용하고 있는 바로 뒷 부분인 요한계시록 11 장 15 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를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조 : 455~456 쪽) . 따라서 이호택 씨와 같이 요한계시록 11 장 2 절부터 14 절을 아버님의 「성화」를 예언하는 성구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이며 , 그 예언은 오히려 재림주가 박해받는 「고난의 길」을 걷는데 , 그것을 뛰어넘어 승리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원리강론』의 해석 및 섭리관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요한계시록 19 장에 「어린양잔치」가 기술되어 있는데 , 참아버님은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부부가 되지 못했던 것을 역사시대의 모든 극복의……참부모를 재현하는 그 잔치가 어린양 잔치입니다」(8 대교재교본『천성경』2192 쪽)고 말씀하셨으며 , 그것이 1960 년의 「성혼식」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호택 씨는 요한계시록 11 장 2 절부터의 성구를 「성화」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는데 , 그후 요한계시록 19 장에 1960 년의 「어린양잔치」를 예언하는 성구가 있는 사실을 고찰하면 그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성화와 성혼식을 뒤바꾼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4) 이호택 씨의 언설 「청평역사가 1995 년부터 출발했는데 , 그때부터 통일교회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망해 갔다」의 잘못

이호택 씨는 「36 만쌍 축복식이 거행된 1995 년이 통일교회가 가장 발전한 퍼크였으며 , 그 이후 통일교회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 갔다 . 1995 년은 청평역사가 시작된 해가 된다 . 청평역사는 결코 죽었다고 할 수 없다」고 청평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

그러나 청평을 성지로 정한 분은 참아버님이십니다 . 아버님은 1969 년부터 청평에 대해 정성조건을 세우며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 청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청평 땅은 세계의 조국 땅 , 만민류의 심정적 고향 땅이 되어야 합니다 . 하늘땅이 추앙할 수 있는 승리적 창조이상을 완성시켜서 하늘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해원 성사할 수 있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고향 땅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 이것이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 ……지금 세계 185 개국에 우리 기지가 있는데 , 부모님의 소원은 이곳을 이 185 개국의 모든 역사적 전통을 전시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 그뿐만 아니라 이 기

지에서 각 나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전통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수련소, 교육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한 땅으로 기도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판도를 통일교회가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승리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참부모경』 429 쪽)

참아버님은 청평을 「창조이상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심정을 해원성사할 수 있는 땅」 「하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수련소, 교육 장소」로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과 미국 목사가 하나 된 기준에 섰을 때,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섭리사를 알아야 합니다. ……일대에서 이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01년)부터 1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복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8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바빴습니까? 통일교회는 97,8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패밀리」 2001년 6월호, 20 쪽)

참아버님께서 통일교회는 1997년, 98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명언하고 계십니다.

참아버님의 인식과 「청평역사가 1995년부터 출발했는데, 그때부터 통일교회는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망해 갔다」고 말하는 이호택 씨의 인식은 크게 어긋나 있으며,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섭리관은 아버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언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5)이호택 씨의 언설 「성서 속에 메시아가 죽은 후에 여성이 상속하는 것에 대해 쓰인 곳이 없다. 참어머님은 여왕이 아니다」의 잘못

이호택 씨는 「성서 속에 메시아가 죽은 후 여성이 상속한다고 쓰인 곳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성서에 대한 “무지”가 낳은 잘못입니다.

성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영적 참어머니인 「성신(성령)」(참조: 『원리강론』 229 쪽)이 신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해 가는 것에 대해 써여 있고, 그것도 「성신(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2: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후의 영적 참어머니인 성신이 신도를 인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신(성령, 영적인 참어머니)이 신도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성신), 그

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 • 16~26)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에 성령(성신)이 강림하고, 그 이후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성신)이 기독교인을 인도해 가게 됩니다.

「원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영적 참어머니인 「성신(성령)」을 통해야만 크리스천은 “영적 중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성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디도서 3 • 5~6)라고 써여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의 역사는 참아버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어머니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 • 32)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니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육신생활에 실체의 참어머니를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만약 결혼해서 상대이상을 이루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이상의 직접주관권으로 연결할 수 있고, 원리로 말하면 책임분담을 완성한 기준이 되므로 직접주관권 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패밀리」 2001년 3월호, 21 쪽)

예수님은 지상에서 「참어머니」를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할 길을 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후, 영적 참어머니인 성신과 더불어 「영적 중생」의 역사만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영적 구원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이신 참아버님은 **실체의 「참어머니」를 복귀하시고, 원죄를 청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약시대, 천일국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문선명 참아버님”과 “한학자 참어머니” 이외에는 안 계십니다**.

또 참아버님은 「여러분, 남자한테 물어 보면 왕이 되고 싶다고 하고, 여자한테 물어 보면 여왕이 되고 싶다고 하지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 아담과 해와는 왕이고 여왕이었던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320 쪽)라고 말씀하시고, 완성한 아담이 「왕」이라면, 그 상대이신 해와는 「여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호택 씨의 언설은 참아버님의 말씀이나 성서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이호택 씨의 언설 「아버님이 2013 년 1 월 13 일을 기원절로 정한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심판까지가 1656 년이며, 그 연수에 한국 역사의 단기를 플러스 하면 6001 년이 되기 때문이다」 의 잘못

이호택 씨는 성서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심판까지의 1656 년의 연수와 한국 역사의 단기 4346 년 (양력 2013 년) 을 더하여, 「인류역사는 2013 년으로 6001 년이 된다. 그러므로 참아버님은 2013 년을 『기원절』 로 정한 것이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 대나무를 접붙이는 것」 같은 언설이며, 역사의 진전에는 인간의 책임분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 잘못된 언설입니다.

노아의 홍수심판까지의 1656 년과 단기 4346 년을 더하여 인류역사가 6000 년의 복귀섭리의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2000 년 전 예수님이 지상에서 「참어머니」 를 복귀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분담이 있었던 것이고, 당시의 유대민족이 책임을 다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 복귀섭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18 세기 경까지의 시대는 성서에 기록된 연수를 그대로 믿고, 그에 근거하여 인류역사를 고찰하는 이른바 「성서연대학」 이 성했습니다. 영국국교회의 제임스 어셔 대주교 (1581~1656) 는 성서의 연수계산에 근거한 천지창조는 BC4004 년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담으로부터 6516 년이다」 고 계산하고 인류역사를 약 6000 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 계산은 예수님 사후, 약 60 년이 지난 AD90 년 경의 암니아 회의에서 정한 헤브라이어 정전에 근거한 계산된 연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널리 읽혀진 그리스어 번역의 구약성서 「70 인역성서」 의 연수표기는 헤브라이어 정전과 다르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2256 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70 인역 성서를 참고하는 것이 카톨릭 교회의 성서입니다.

시토포 수도회의 원장을 역임한 폴 페즈론 (1639~1706) 은 70 인역 성서의 연수에 기초를 두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역사를 5873 년으로 계산했습니다. 70 인역 성서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로 약 6000 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성서의 약 6000 년이라는 연수 표기에 대하여 몇 번이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원섭리역사는 6000 년이 아닙니다. 몇천만 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패밀리」 2001 년 6 월호, 8 쪽)

참아버님께서 「인류역사는 6000 년이 아니다」 고 하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6000 년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해 오신 참아버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성서에 쓰인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심판까지의 연수를 1656 년과 단기 4346 년이라는 단수인 숫자를 합해서, 굳이 6000 년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어 「기원절」 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로 기묘한 말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2004 년 7 월 8 일의 제 9 회 「안시일」 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

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생애를 통해 경계선을 해방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85 세인데, 80 세로 가나안을 복귀해서 천하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아벨 가인이 남아 있으므로 제 2 차 축복을 받아 아벨 가인의 철퇴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20 년 (120 세) 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선생님은 첫 40 년, 80 세까지 40 년, 지금의 40 년을 각각 4 년으로 해서 2001 년부터 2012 년까지 92 세를 중심한 2012 년까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입니다」(『후천시대와 참사랑의 절대가치』 255 쪽)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2000 년까지 끝내야 할 섭리를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1920 년부터 60 년까지 40 년을 제 1 차 4 년노정으로 하고, 다음으로 1960 년부터 2000 년까지 40 년을 제 2 차 4 년노정으로 하고, 나아가 2001 년부터 2040 년까지 40 년을 제 3 차 4 년노정으로 하여, 실패도 연장도 없었던 기준을 탕감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된 것이 2013 년 (천력) 1 월 13 일의 「기원절」입니다.

즉 **2001 년 1 월 13 일의 「하나님왕권즉위식」** 으로부터 **2013 년 (천력) 1 월 13 일까지의 12 년이 지나 「기원절」** 을 맞이한다는 것이 참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설명입니다.

이호택 씨가 말하는 섭리관은 참아버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섭리관입니다.

(7) 이호택 씨의 언설 「아버님께서 청평의 210 대 조상해원을 지시하신 것은 홍수심판까지 210 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담까지 올라가면 220 대까지밖에 안 되는데 청평이 420 대 해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의 잘못

이호택 씨는 성서에 기록된 연수를 문자대로 믿는 입장에서 「아담까지 올라가도 220 대 밖에 되지 않는데 청평 (한국) 이 420 대 조상해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며 청평 역사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참아버님은 인류역사가 6000 년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인류역사는 6000 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420 대 조상해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호택 씨는 문형진 님이야말로 섭리의 중심존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영원한 중심존재는 「참부모」입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정점을 이루는 때요, 전무후무한 때인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003 쪽)

「**참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구요. 영원히... 아담, 해와, 선조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여자, 하나의 남자입니다. 이것이 참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타락해서 엉터리 부모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모두 부정해 엉터리가 아닌 절대적인 부모를 다시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이룩할 수 없다구요. 이것은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논법으로 비추어 보면,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진정히 사랑하는 신랑신부를 중심삼은 진정한 가정, 진정한 이상국가, 진정한 이상세계를 구성하고 만들자는 내용을 가진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면 참종교가 아니다. 진정한 종교란, **진정한 부모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부모가 태어나 진정한 가정을 만든다** 하는 이론을 가진 종교라는 거예요」(말씀선집 257-131, 1994년 3월 14일)

참아버님은 이렇게 「참부모」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다, 전무후무한 참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어디까지나 **참부모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지, 다른 어떠한 사람도, 참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자녀님도,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 참부모님이 자녀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호택 씨의 언설은 인류가 「참부모」를 중심으로 영원히 하나 되어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거짓 언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참아버님께서는 복귀섭리 완성을 「**내 일대에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그 말씀대로 2010년 천력 5월 8일과 동월 15일에 두 번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참부모님의 「**최종일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하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택 씨는 마치 참아버님께서 사명을 다 하시지 않고, 미완성인 채 성화하신 것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호택 씨가 설명하는 것같은 “거짓 언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들은 2015년 9월 경까지 이호택 씨의 영상과 언설로 권유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본부는 그의 언설이 참아버님의 말씀과 『원리강론』과 상이하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그 후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정연합을 비판하고, 권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 내용의 잘못을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논하겠습니다.

(교회성장연구원)

(1) 「메시아」와 「참부모」의 개념에 대하여 참어머님도 메시아다

문형진님은 참어머님에게 대하여 「어머님 자신을 하나님이나 메시아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대상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메시아의 혈통 외에는 모두 사탄의 혈통입니다. 사탄의 혈통인 한 씨 혈통을 어머님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선언하고, 아버님의 옥좌에 앉게 되었다」고 하며, 어머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응답하겠습니다.

『원리강론』에는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한다」(247쪽)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8대교재교본『천성경』191쪽에 있는 제목에는 「메시아는 『참부모』이다」고 되어 있으며, 참아버님은 「메시아는 참부모입니다」(192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통일원리에 있어서는 메시아란 「참아버지」와 「참어머니」양자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8대교재교본『천성경』192쪽에서, 참아버님은 「메시아는 남자입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일견 「메시아는 참부모」라고 하는 설명과 “모순”된 말씀을 하신 것같이 생각됩니다만, 「메시아는 남자입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맞고, 모순은 아닙니다. 그 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순과 같이 생각되는 비슷한 말씀으로 8대교재교본『천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와야 됩니다. 참부모가 역사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대행하는 하나의 명사를 씌워서 부르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것이 구주라는 존재요, 메시아라는 존재입니다.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면,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와야 되느냐? 틀림없이 참부모로 와야 됩니다. 메시아는 참부모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주로 믿습니다.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는 하나의 남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

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다가는 큰일나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삼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서로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이 어린양 잔치입니다」(176~177 쪽)

이 말씀에도 「참부모」, 즉 두 사람이라는 개념과 「한 사람의 남성」이라는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종래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한 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처럼 남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인간조상」의 입장으로 오셔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창조이상인 하나님의 뜻을 인간조상의 입장에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참부모」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위기대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권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그들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기대를 말합니다」(『축복가정과 이상천국(1)』 298~299 쪽)

메시아는 먼저 남성으로 오시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인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려면 먼저 반드시 참어머님을 세워서 「참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통일원리에서는 메시아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참어머니」도 「참아버지」와 더불어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형진님은 「어머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참어머님은 참아버님 대신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님은 「아버님 대신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가 아니라 이미 「**어머님도, 아버님과 더불어 메시아입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님은 1992년 8월 24일, 제 1회 「세계문화체육대전」 축하만찬회에서 전세계에 「**나와 내자 한학자 여사는 인류의 참부모이며, 구세주·재림주이며,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버님의 메시아 선포에는 어머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그러면 메시아사상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구하고, 통일시키기 위한 사상인, 본연의 이상가정을 건설할 수 있는 가르침이며, 인간 조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위치에 있는 참부모의 입장을 되찾는 것입니다」(2001년 1월 22일, 『참가정과 세계평화』 522 쪽)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참부모」가 되어야 했던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되찾는 것이 메시아이며, 그것이 「참부모」입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구세주가? 구세주의 책임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세주의 가정을 구해야 돼요. 가정을 구하기보다 구세주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보

다 구세주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의 하늘땅, 구세주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해방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나 하나 천국 가자』 하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여편네가 남편을 천국 보내고 남편을 따라가겠다고 해야지, 남편을 내버리고 나만 가겠다고 할 수 없어요. 가정을 천국 보내고 천국 가려는 게 통일교회 패입니다. ……메시아의 책임이 그것입니다. ……개인을 천국 보내고, 가정들을 천국 보내고, 종족을 천국 보내고, ……지옥에 있는 모든 만민까지 해방시켜 가지고 천국 다 보내고, 하나님의 모든 슬픈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런 책임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개인 메시아 되겠다고 개인의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필요 없어요. **가정 메시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 메시아를 또다시 찾아야 됩니다.** 가정 메시아가 됐으면, 종족 메시아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가정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중심될 수 있는 구세주의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다 이겁니다」(『종족적 메시아』 52~53 쪽)

이처럼 메시아는 개인 메시아로서 먼저 「남성」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가정 메시아, 종족 메시아, 국가 메시아, 천주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까지 해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본연의 「해와」가 있어야 됩니다. 즉 승리한 가정 메시아 이상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는 「참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 1992년 8월 24일에 하신 「메시아선포」에 참어머님께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어머님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2) 「메시아의 혈통은 문 씨이지 한 씨가 아니다」라는 비판에 대한 응답—부정확한 “혈통” 이해에 근거한 비판

문형진 님은 「메시아의 혈통 이외는 모두 사탄의 혈통입니다. 사탄의 혈통인 한 종족의 혈통을, 어머님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선언하고, 아버님의 옥죄에 안게 되었습니다」고 하며 참어머님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아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참어머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자만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참아버님은 남성과 여성, 양성의 “생명”이 관계되어 혈통이 관여하여 혈통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봤습니까? 생명을 만져 봤어요? 생명체는 보이지만 생명은 모릅니다. 만져 볼 수 없습니다. 혈통도 그렇습니다. 혈통은 부부가 사랑하는 그 밑질, 안방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체로서 결합할 때 혈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패밀리」 1995년 3월호, 22 쪽)

「혼자 혈통이 연결됩니까? 이 혈통은 남자의 피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패밀리」 2001 년 3 월호, 21 쪽)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이어받은 곳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난자와 정자가 하나 된 곳에, 사랑으로 뿌리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패밀리」 2007 년 3 월호, 7 쪽)

참아버님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생명이 연결, 즉「혈통」에 대하여, 그것은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물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 정자와 난자의 생물학적 차원의 지적만 아니라 더 깊게 고찰하시어, 「사랑으로 뿌리가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연결되는가, 사탄의 혈통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사랑”을 인식해야 됩니다.

참아버님은 평화메시지에서 「생명과 사랑이 합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혈통입니다」(『평화신경』 17 쪽),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동, 28 쪽)라고 하셨는데, 혈통은 남녀에 의한 양성의「생명」이 없이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생명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요, 사랑이 없어도 혈통은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 혈통 중 그 열매가 혈통이란 말입니다」(동, 17 쪽)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 씨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에는 참아버님만 「무원죄」이며, 그 이전의 문 씨 가문의 사람들 및 직접 육신의 양친되는 문경유 충부님, 김경계 충모님도 모두 원죄를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경우에도 예수님은 「무원죄」인데, 육친인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혈통의 시작이 되야 할 분은 제 2아담인 예수님뿐이고, 하나님의 혈통의 시작이 되신 분은 제 3아담인 문선생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혈통의 출발점이 되는 분이야말로 인간조상의 입장인 참부모님이시며, 거기서부터 혈통이 출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이 출발하려면 「참아버지」뿐만 아니라 「참어머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조상 되는 입장의 해와가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참어머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을 출발시킬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혈통의 시원이 되어야 할 입장에서 그 생애노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의 경우는 **인류의 참어머니인 한학자 부인을 세울 수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혈통의 시작이 된 분이 되시어 축복결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중생시키는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문 씨」(참아버지)와 「한 씨」(참어머니) 두 분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의 혈통을 출발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바른 이해이며,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메시아 혈통은 어디까지나 문 씨이며 한 씨가 아닙니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 의미에서 바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메시아의 혈통 이외에는 모두 사탄의 혈통입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사용해야 할 말입니다. 즉 메시아가 「참부모」가 된 하나님의 혈통을 출발시키시기까지는 인류역사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혈통, 즉 타락의 혈통이었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탄생시킨 문 씨 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한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 해야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형진 님이 하시는 비판은 부정확한 내용이며, 그릇된 것입니다.

(3) 독자의 「축복식」 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혈통전수는 부모만의 특권

현재 생츠퍼리교회에서는 「참하나님과 참아버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오기 위한 축복식」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의 「축복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2016년 아버님의 성탄절까지 생츠퍼리교회의 축복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아버님 성화 후, 참아버님 아래 거행된 축복식은 『사탄 주관하의 축복』이다」고 비판합니다.

이 문제를 원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생츠퍼리교회에서 거행하고 있는 「축복식」은 지금까지의 성주와 다른 “독자적인 성주”를 만들어 거행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에 대해서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입회 하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입회 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주를 만들 때는 영계의 영인들이 와서 제발 한 잔만 부어서 자기에게 억지로 먹게 해 달라고 합니다. 성주를 먹으면 복귀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 ‘너희들은 기다려!’하고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준 것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1243~1244 쪽)

영인들이 와서 자꾸만 「마시게 해 달라」고 졸라달 정도로 성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조상의 입장에서 승리하신 참부모님의 승리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주식은 혈통전환식입니다.

「성주식은 무엇 하는 것이냐? 새로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 속에 투입시키는 의식입니다. 타락한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바뀌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주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요,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먹고 마셔야 한다고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실체를 중심삼고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 원죄를 씻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축복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혈통을 전환시키는 식입니다」(동, 1242 쪽)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인간조상의 입장에서 승리한 참부모님께서 혈통전환 식인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평화메시지에서 「하늘의 참된 혈통을 갖고 오신 참부모님을 통해 결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은사입니다.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주식을 통해서 혈통 전환을 하고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평화신경』 22~29 쪽)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주」를 사용해서 거행하는 곳이야말로 「축복」의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천일국 성주는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며, 가령 아버지께서 영계에 가신 후라고 하더라도, 그 승리권은 영원하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계에 간 후에도 빵과 포도주에 의한 「성찬식」으로 영적 구원의 은혜가 2 천년 간 주어져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참아버님 성화 후, 참어머님 아래 거행된 축복식은 『사탄 주관하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잘못입니다.

또 참아버님께서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핏줄은 어디까지나 「부모」가 전수해 주는 특권이지, 자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혈통전환」이나 「혈통전수」라고 하는 “특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어디까지나 「참아버지」와 「참어머니」, 즉 참부모님뿐이며, 결코 자녀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츠퍼리교회에서는 「독자의 성주」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천일국 성주를 사용한 「축복식」주례의 특권도 참부모님으로부터 위양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는 축복식은 비원리적인 축복식이며 무효로써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4)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과 일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주 : 이 문제는 No.2의 소책자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은 2012년 1월 19일, 참아버님께서 천정궁박물관 훈독회에서 「어머님은 아버지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님이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작은 악마다. 이놈들」이라고 하셨다고 하며, 「참어머님을 참아버님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석준호, 윤정호, 황선조, 김효율 네 사람을 세워서 절대복종을 하는 의식하신 것 같다」, 「아버님은 어머님에 대하여 『누시엘보다도 나쁘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잘못을 하셨으니, 『최종일체』가 되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9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참어머님은 참아버님과 일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극단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승리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최종적 판단은 하나님과 아버지밖에 없습

니다. 절대 우리들의 차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2012년 1월 19일인데, 그 후 참아버님은 어머님과 더불어 동년 3월 24일(천력 3월 3일), 한국 청평에 있는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천지인참부모승리해방완성개문시대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만약 참어머님께서 「**누시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라고 한다면 참아버님은 어머님을 세워서 두 분이 「축복식」주례를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참아버님은 동년 4월 14일(천력 3월 24일), 미국 라스베이가스 천화궁에서 혼독회를 마친 후, 「특별선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 선포식에서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참부모님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두 사람이 타락이 존재하지 않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통일적인 가정에서 하나의 중심, 일체권을 이루어 하늘의 승리의 패권적 주권과 천국을 완성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 뜻을 따라 고생한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순서를 하늘 앞에 이 시간, 깨끗하게 정리하여 바치는 기념의 시간으로 받아 주시어, 하늘에 봉헌,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아버님 기쁨으로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투데이스 월드 재팬」2012년 6월 10일호, 18쪽)

그리고 참어머님에 대하여 「어머님, 수고했어요! 아버님 앞에 인사하고……」라고 하시고, 참아버님은 어머님의 경배를 받으신 다음, 「창조주의 권한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중심삼고 천지인참부모정착실체말씀선포천주대회를 **최종 완성·완결할 것을, 아버님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아버님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고 하신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천지인참부모정착실체말씀선포천주대회를 **최종완성·완결할 것을, 아버님 앞에 봉헌하오니**」라고 기도하시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최종 완성·완결한 것을 하늘 앞에 선포하고 봉헌하셨습니다.

또 동년 7월 16일(천력 5월 27일)에는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아벨여성 UN 창설대회」를 거행하시고, 참아버님은 참어머님을 총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거역하시어 실패하셨다면 아버님은 굳이 어머님을 총재로 세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님을 실패했다고 판단되었다면, 인류구원에 대한 집념을 불태우고 전 생애를 하나님 해방을 위해 바쳐 오신 아버님이시므로 인류구원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어머님 대신한 인류의 「참어머니」를 다른 누군가로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끝까지 어머님을 세우셨고, 어머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님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고 했습

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창조목적, 창조이상세계를 이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가시는 날 아버님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아버님이 남기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낙오자가 되는 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버님도 바라시는 것입니다」(『참부모경』 1504 쪽)

이상과 같은 대화가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사이에 오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끝까지 아버님은 어머님을 세우셨으며, 어머님께 「뜻 성취」를 맡기시고 성화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심삼고 생각하면 아버님과 어머님은 완전일체가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5) 「참어머님은 완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 측은 2007년 5월 11일, 참아버님께서 「지금 어머님은 2013년 6월 16일까지 자기를 완성시켜야 합니다」고 하셨다고 주장하며, 「기원절 시점에 있어서 『어머님은 완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한국어 말씀 원문을 보면 「어머님은 지금 2013년 2월 16일까지 그것을 완성해야 합니다」(2007년 5월 11일)라고 되어 있으며, 참어머님을 가리키며 「완성해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한이 되는 날짜를 「2013년 2월 16일까지」가, 「2013년 6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원절(양력 2월 22일)보다 뒤로 변경하셨습니다. 이 비판은 말씀을 부정확히 인용하고 있으며, 치졸한 비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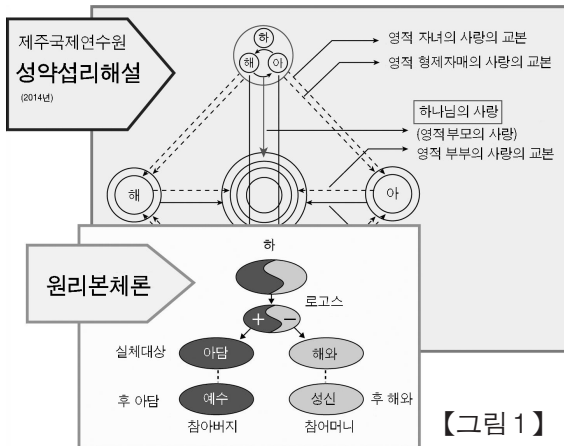
(6) 참어머님이 참아버님의 의자에 앉으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문형진님은 「참어머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선언하고, 참아버님의 옥좌에 앉았습니다」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의자에 앉아계시는 사진을 보이며 「아버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이미 참부모님 내외는 최종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에서,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선포하신 것입니다」(「투데이스 월드 재팬」 2011년 7월 1일호, 20쪽)라고 하시며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거하여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께서 「최종일체」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식구라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어머님은 같은 의자에 앉을 정도로 아버님을 공경하고 계시며, 일체화되어 계신다」고 받아들이니다.

그런데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볼 때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머님을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돌아가신 반려자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



【그림 1】

랑하는 사람의 “잔향” 을 만지고 싶고, 추억이 있는 곳에 앉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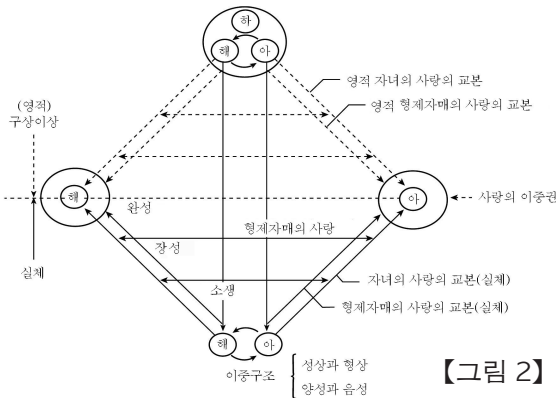
하물며 “전무후무” 한 영원히 유일한 참부모님입니다. 완전일체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하는 마음, 신앙의 마음으로 참어머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7) 사위기대의 그림에서 아담과 해와의 위치가 역전하고 있는 문제—이것은 주관성 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츠했어리교회 측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위기대 그림을 그릴 때 주체인 아담을 왼쪽, 해와를 오른쪽에 그린다. 그런데 현재 원리강의 (성약섭리해설) 에서는 해와를 왼쪽, 아담을 오른쪽에 그리고 있다. 이것은 주관성 전도다」



【그림 2】

수도 켄 저 「성약섭리해설」 (28 쪽, 1996 년)

그들은 이렇게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을 주관성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응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있는 「성약섭리해설」 강의안에 사용하고 있는 그림 (【그림 1】 참조) 은 2014 년으로 표기까지 되어 있는데, 1994 년 수도 켄 선생 (43 가정) 이 참아버님의 지도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 그림은 아버님께서 직접 그리시고 판서하신 대로 강의안을 만든 것이며, 지금 시대권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20 수년 전 16 만 방한 세미나 (제주도) 때 작성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담이 오른쪽, 해와가 왼쪽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주관성 전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996 년 제본한 수도 켄 저 「성약섭리해설」 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림 2】 참조).

그런데 종래의 강의안은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이 왼쪽, 해와가 오른쪽에 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우의 위치를 역전시키면 듣는 사람들이 대단히 혼란해 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장에서 강사들은 제주도수련회에서 작성한 강의안을 채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보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 16 만 방한 세미나는 일본 부인만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이며, 한국 및 세계에 있는 식구들은 참가

하지 않았으므로 세계적으로 보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생츠퍼리교회 측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아담과 해와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참아버님께서 참아버님을 주관성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츠퍼리교회 측은 아담과 해와의 위치가 역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천사장을 동그랗게 둘러 친 그림 (【그림 3】을 참조)에 대해서도 「일본교회에서는 타락이 마치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일어났다고 교육하고 있다」고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이 “동성애” 문제라고 강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도 그들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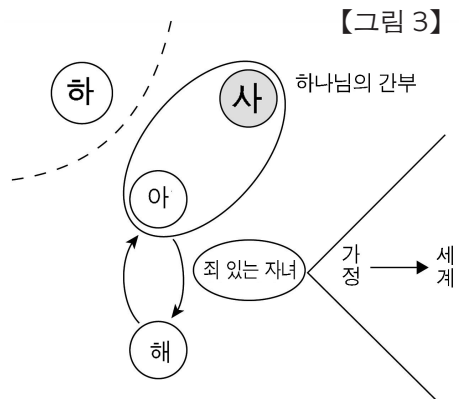
성약섭리해설 강의는 『원리강론』의 「타락의 동기와 경로」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먼저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영적 타락”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해와와 아담 사이에서 “육적 타락”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은 얼토당토 아니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영적 타락을 한 해와가 천사장의 아내 (첩)의 입장에 서게 되고, 다음으로 육적 타락으로 인해 아담을 타락시킨 것으로 타락 아담을 사탄의 “아들” (서자)의 입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타락 해와가 아담을 사탄의 아들의 입장으로 다시 낳은 것에 대하여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의 책임은 사탄을 중심하고 해와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에게 이동되었습니다. 즉 거짓 생명의 씨를 받은 해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대신 **사탄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해와와 하나가 되어 아담을 낳은 입장으로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해와는 천사장과 아담을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입장에** 세워 타락하였으므로 탕감복귀도 정에서 찾아 세워진 하나님의 뜻의 계대를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천일국경전 『평화경』 90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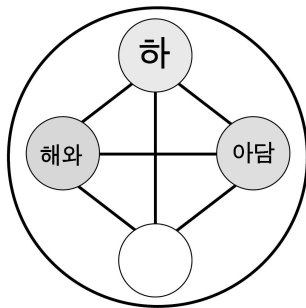
【그림 3】(주 : 사탄과 아담을 원으로 둘러싼 부분)은 육적 타락을 함으로써 타락한 천사장과 아담 사이에 “거짓 부자관계” (참고 : 요한복음 8·44)가 성립하고, 아담이 “사탄의 실체”라고 하는 입장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실체의 입장에 있는 타락 아담의 더럽혀진 씨가 타락 해와의 태중에 심어져 사탄의 혈통을 가진 자녀가 번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간부」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표기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은 처음 독했다」고 비판하는 생츠퍼리교회 측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간부」라는 말은 참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약섭리해설」 강의안에 있는 그림

【그림 4】



2015 년 세계지도자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 들어 있는 그림

예를 들어 참아버님은 평화메시지에서
「(인간조상이 타락함으로써)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
짓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
명과 핏줄이 사랑의 원수인 간부 사탄의
소유권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평
화신경』 18 쪽), 또 다른 말씀에서도 「사
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간부입니다」
(8 대교재교본 『천성경』 1711 쪽) 등으
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 년에 거행된 「세계지도
자회의」에서 배포하신 자료 일부에 아

담과 해와의 위치를 좌우를 역전시킨 사위기대 그림이 들어있습니다(【그림 4】참조). 이 그림은 작업한 한국 사람이 “인위적 미스”를 함으로써 원본의 한국어(주: 아담이 왼쪽, 해와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와는 달리 아담이라고 해야 할 곳이 일본어의 「해와」라고 되어 있고, 해와라고 해야 할 곳이 일본어의 「아담」이라고 되었는데, 그 자료가 생츠퍼리교회 측으로 건너가 소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 미스”였던 것이지, 제주도 수련회의 강의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그 작업을 한 한국 사람은 혹시 제주도 강의안을 본 적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하여 그와 같이 역전시키는 미스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993 년 10 월부터 1994 년 11 월에 걸쳐 거행된 16 만 방한 세미나 때에 작성된 성약섭리해설 강의안은 참아버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아담을 오른쪽, 해와를 왼쪽으로 역전시켜 그렸던 것입니다.

(8) 「나를 교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내가 결심한 것입니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2014 년 10 월 27 일에, 참어머님께서 「나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도 아닙니다. 독생자, 독생녀는 동등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내가 결심한 것입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생츠퍼리 교회의 사람들은 「**참아버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어머님을 비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분명히 참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전부 알고 있는 여자들의 머리 위에 세우려니 선생님 혼자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1994 년 3 월 20 일, 258-329), 또는 「**어머님은 아버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절대복종만 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와가 아담을 주관했던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하려면 아담에게 완전히 주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1967 년 6 월 12 일, 18-27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참어머님은 이러한 참아버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어머님께서 걸으신 길은 이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승리한 「인류의 참어머니」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참아버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관철하면서 오로지 뜻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여자를 창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남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자를 재창조하는것입니다. ……세계적인 여자 완성권을 대표한 한 사람을 중심삼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해 나온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 선생님 뒤에 딱 붙어 따라온 것입니다」(『참부모의 절대가치와 종족적 메시아의 길』 77 쪽, 말씀선집 232-29)

「우리 어머니는 말이에요, 내(참아버님) 그림자와 같아요.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으니까 나는 실체를 가진 주체 교주고 우리 어머니는 대상 교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교주, 어머니는 제 2 교주예요. 무엇을 중심삼고 그래요?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다는 겁니다」(동, 116 쪽, 말씀선집 202-83)

이들 말씀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참어머님은 참아버님을 따라 「딱 붙어 따라왔다」「따라 다니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절대복종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아버님으로부터 「제 2 교주」라고 불리는 위치에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걸어오신 노정에 대해 아버님이 보시면 틀림없이 「아담이 해와를 재창조했다」「아버님이 어머니를 교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어머니」가 걸으신 노정은 절대신앙으로 따라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노정이 아닌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참어머님께서 걸으신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960 년부터의) 7 년간이라는 것은 실로 온갖 비난, 중상, 소문, 오해가 선생님 일가를 둘러싸고 소용돌이 쳤습니다. 비난, 중상, 박해로 피 흘리는 기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이러한 시련을 참아내고, 비난받아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입장이 어려웠던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승리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머니는 끊임 없이 불굴의 신앙으로 참고, 희생하면서 침묵으로 지켜 나오고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들 사정에 대해서는 결코 둘이서 말을 맞추어 나온 것이 아니라 『자, 어머니,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겨내고, 불굴의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하는 설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위로했다면, 설령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해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이해해

서 참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 정도도 어머니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축복」 1977년 하계호, 59~61쪽)

참아버님께서 「어머니 스스로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이해한 다음 인내로 승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가르쳐 주거나 교육하거나 할 수 없는 길이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목숨을 건 결의로 어머니로서의 길을 걸어 스스로 깨달아 그 길을 개척해 오신 것입니다.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나를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결심한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 혼자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귀하려면 (해와는) 아담에게 완전히 주관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참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모순은 아닌 것입니다.

(9) 8 대교재교본 『천성경』을 고쳤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문형진님은 2015년 7월 19일의 설교에서 「어머니의 지도로 『천성경』은 80%를 고쳤다」고 하며 『천성경』을 고쳤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8 대교재교본 『천성경』과 천일국경전 『천성경』은 명확히 구별되고 있으며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8 대교재교본 『천성경』은 각 가정에서 소중히 하며, 훈독하고 있습니다.

어느쪽의 『천성경』도 참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천일국경전 『천성경』은 8 대교재교본 『천성경』과 마찬가지로 『문선명선생말씀선집』으로부터 말씀을 추출하여 편찬한 것이며, 말씀을 개조하지 않았습니다.

또 천일국경전 『천성경』은 8 대교재교본을 생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1449쪽에 8 대교재교본에 대해서 「옥고를 치르면서……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여러분이 영계에 가서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8 대교재교본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8 대교재교본 『천성경』을 경시하여 개조했다는 의미가 있으면 8 대교재교본을 회수하여 폐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말씀이 많은 출판물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8 대교재교본이 개조된 사실은 없습니다.

또 8 대교재교본 『천성경』에는 2000년 이후의 말씀이 거의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후 참어머니는 2000년 이후의 말씀을 포함한 생애 전체의 말씀을 정리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8 대교재교본」 이외의 말씀을 모음으로써 분과가 「말씀집」을 작성하여 마음대로 공표하여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참아버님 성화 후 「말씀집을 내겠다」고 준비한 영적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선생님이 생애 전체의 결실로 선포한 말씀, 그것이 『천지인참부모정착실체말씀선포천주대회』입니다」(2011년 2월 3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실의 말씀은 8대교재교본 『천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말씀이 천일국경전에 수록된 것은 앞으로 영원히 말씀의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천일국 시대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 「기원절」「천지인 참부모님」「천력」「후천시대」「안시일」「천일국헌법(교회법)」「희년」「성화」「아주」 등이 8대교재교본 『천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한 것을 정리해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을 만든 것입니다. (8대교재교본 『천성경』은) 지금까지 출판한 선생님의 설교집 4백 80권 가운데서 뽑아낸 말씀입니다. 그 3배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천성경』 2권, 혹은 3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2008년 9월 25일)

이 말씀과 같이 참아버님께서 편찬하지 않은 말씀을 『천성경』 2권, 3권으로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참아버님은 이 아버님의 소원에 따라 아버님께서 뜻을 출발하신 이후 「다 이루었습니다」하는 최후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노정의 말씀을 망라한 천일국경전 『천성경』을 편찬하신 것입니다.

또 『평화경』에 대해서인데, 참아버님은 생애에 걸쳐 수많은 강연회를 하셨습니다. 그 강연문도 미정리 상태였는데 『평화경』에는 약 80편의 강연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에게 선포하신 강연문이 1권으로 정리된 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위업입니다.

나아가 『참부모경』에 대해서인데, 하나님과 인류의 최대의 관심은 참부모입니다. 참아버님은 「선생님이 살아 있을 때는 선생님의 역사를 쓰지 않지만, 선생님이 죽은 후에는 선생님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1970년 8월 11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이 말씀에 따라 참부모님의 생애노정과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참아버님 이외에는 안 계십니다.

(10) 「성혼문답」을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문형진님은 「아버님의 지도하에.....성혼문답도 바꿨다」고 하며, 참아버님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이전의 「성혼문답」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대들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성숙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할 것을 하나님과 참부모님 앞에 약속하느뇨?

2. 그대들은 참부부가 되어 앞으로 자녀들을 뜻에 맞게 양육하며 통일가 전체와 인류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양성할 것을 약속하느뇨?

3. 그대들은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통일가의 전통을 이어받아 후대의 통일가의 후손들과 인류 앞에 자랑스러운 전통을 전수할 것을 약속하느뇨?

4. 그대들은 창조이상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4대심정권과 3대왕권적 전통을 확립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같이 세계인들은 사랑하여, 지상천국 건설과 천상천국 건설의 기본이 되는 이상적 가정을 형성할 것을 약속하느뇨?

상기의 내용이 현재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성숙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느뇨?」

양자를 비교하면 4 개의 내용이 간략하게 하나로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 의 「성숙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설정」이,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성숙된 선남선녀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로. 2 의 「자녀들을……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양성」이, 「(자녀를 양육하여)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로. 3 의 「참부모님을 중심삼고 통일가의 전통을 이어받아」가, 「천지인참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로. 4 의 「지상천국 건설과 천상천국 건설의 기본이 되는 이상적 가정을 형성할」이, 「천일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로 각각 대응하고 있으며, 실로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성혼문답이 「통일가」라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전인류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성혼문답은 기원절을 맞아 천지인 참부모님의 시대적 승리권에 따라 변화한 것이며, 만민이 인종, 민족, 문화의 벽을 넘어 이해하고, 천일국 완성 후에 있어서도 영원히 다짐하는 보다 보편적인 「선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늘아버지」에서 「하늘부모님」으로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문형진 님은 「**어머님의 지도로……(하나님을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르라) 일신교를 이원론으로 바꿨다**」고 하며 참어머님을 비판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참아버님은 2010년 1월 1일 오전 0시 기도에서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지상에 상대적 입장에 선 지상의 부모님을 일체화시켜 천정궁박물관을 세우고, 하늘의 안팎의 온갖 고통의 길, 탄식의 길을 제거하시기 위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늘부모님」은 아버지께서 “유일신”에 대해 쓰신 호칭이며, 그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시켜 둘로 갈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원리강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13 쪽),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어」(13 쪽), 「부모되신 하나님은」(41 쪽), 「인간의 부모되시는 하나님」(71 쪽) 「하늘부모로 계신 하나님」(210 쪽) 등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버님은 “인간의 성장과정”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결혼하는 이 모든 전부가 부부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요, 부모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길입니다」(8 대교재교본 『천성경』 2335 쪽)

이 인간 성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참아버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창조란 하나님 자신이 커 온 것을 실제로 재차 전개시켜 나오는 것입니다」(동, 1591 쪽)

「하나님도 아기와 같은 때가 있었고, 형제와 같은 때가 있었고, 부부와 같은 때가 있었고, 부모와 같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동, 1591 쪽)

종래의 신학은 하나님은 “영원불변” “절대자” 로 보고, 「하나님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한복음 10·30)고 하신 예수님은 성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로 성장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원은 결혼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버님은 아담과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적 부모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몸이고, 종적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여기서 몸 마음이 하나 되어 가지고 사랑하는데는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몸적인 부모의 결혼식인 동시에 “마음” 적인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 되는 것이다」(「패밀리」 1999년 1월호, 22쪽, 1998년 11월 19일)

「아담과 해와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실체를 입는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아담 해와가 선한 자녀를 가져 참부모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존의 부모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 또 하나님이 인간 혈대를 통해 자자손손 번성하심으로써 천상천국의 시민을 무한으로 두시고 싶으신 이상을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축복가정과 이상천국(1)』 26쪽)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존의 부모위를 실체적으로 확정짓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부모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기원절을 기하여 하나님의 명칭이 「하늘부모님」이 되셨는데, 이것은 참부모님께서 「최종일체」를 이루시고, 섭리의 「완성, 완결, 완료」를 선포하는 승리권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어의 하나님」 「고자의 하나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해방하시고, 나아가 인류 자녀들에 대하여 참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늘부모님」 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 참아버님은 하나님의 혈통의 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부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이상하셨던 대로 당신의 실체인 아담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해와를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부모가 되어 선한 사랑, 선한 생명, 선한 혈통의 시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 28 쪽)

말씀에 「4 대 심정권과 3 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 (8 대교재교본 『천성경』 2344 쪽) 이라고 하신 것처럼 3 대 왕권 (삼대권) 의 완성이 이상가정이라면 그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고, 나아가 그 자녀가 결혼하여 손자를 낳아 조부모가 되고, 그 손자의 결혼까지 포함한 참가정의 “3 대권 완성” 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강론』 에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시었다」 (237 쪽) 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개인노정” 은 갖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노정” 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님이 걸으신 1960 년 천력 3 월 16 일의 「성혼식」 으로부터 2013 년 천력 1 월 13 일의 「기원절」 까지의 하나님의 섭리는 참부모님께서 「참부모」 로 성장하고, 완성하여 가시는 “가정노정”, 나아가 “천주적 노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부모님」 이 되시는 성장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원절」 은 하나님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천일국을 실제적으로 출발하는 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천일국경전 『천성경』 1374 쪽). 따라서 「기원절」 을 기해 하나님을 「하늘부모님」 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랜 역사에 있어서 소망해 오신 “부모가 되고 싶다” 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 천일국 국가를 바꿨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

문형진 님은 2015 년 7 월 19 일의 설교에서 「어머님의 지도하에 천일국가가 바뀌었다」 고 하며, 참어머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참아버님은 2006 년 6 월, 성가 3 장 (일본 성가 4 장) 의 「영광의 은사」 를 천일국가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 성가 멜로디가 달라, 국제집회 등에서 부를 때 노래가 맞춰지지 않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노래가 안 맞는 것은 “국가” 의 권위에 상처를 줍니다. 한일일체는 천일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며, 참아버님은 한일일체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참어머님은 아버님의 그 뜻을 받아, 어머니 나라인 일본을 사랑하시어 한일일체화를 더욱 강고히 하고 계십니다.

참아버님은 또 천일국의 국가를 제정할 때 국화(장미와 백합), 국조(학), 천일국기 등도 정하셨는데 「기원절」을 기해 그 내용을 모두 넣은 새로운 천일국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바라는 자유·평화·통일·행복의 항구적 가치를 노래하고, 천지인 참부모님을 칭송하며, 천일국 비전과 소원이 5 대양 6 대주, 천주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천일국 국가는 한일간에 일치하고, 한일간에 노래가 흐트러짐이 없고, 그 가사도 “국가”로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한일일체화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제정하신 천일국 내용 전부를 넣은 천일국 국가를 구현화하시는 분은 참어머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참아버님께서 작사하신 「영광의 은사」 「성령의 새노래」는 영원히 성가로서 앞으로도 부를 것이며, 지금도 집회 등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13) 「천기원년」을 「천일국원년」으로 바꿨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은 참아버님께서 2010년에 정하신 「천기원년」의 연호가 참어머님에 의해 「천기가 『천일국 원년』으로 바뀌었다. 아버님이 세우신 전통이 어머니에 의해 뒤바뀌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응답하겠습니다. 참아버님은 2010년에 「천기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기원절」을 기해 참어머님은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은 아버님의 소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해 오신 하늘의 섭리는 항상 어머니의 승리권과 더불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참아버님은 1977년 2월 23일 성탄일에 「천기원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날은 「지승일(천지승리의 날)」이기도 한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7년 2월 20일은 음력으로 1977년 1월 3일입니다. 음력이나 양력으로 1976년을 보내고 3일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특별히 통일교회와 축복받은 가정들이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74쌍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 통일교회, 선생님,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식전을 마치고 3일 후에 선생님의 탄신일을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로 말하면 33세를 지나고 34세를 맞는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34세의 생일을 기쁘게 맞고 싶었던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탕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부터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축복가정과 이상천국(2)』 469 쪽)

참아버님은 1993 년에 「성약시대」를 선포하시고 「성약시대」로서 해를 세어 나갔는데, 그해 「부모의 날」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34 회 부모의 날입니다. 33 주년입니다. 33 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늘 부모의 날은 예수님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 세 때에 가정을 이루어야 했는데, 십자가 상에 돌아가 그 위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축복」 1993 년 하계호, 55 쪽)

그리고 참아버님은 이스트 가든에서 특별한 축하행사를 하시며 참어머님께 반지를 주셨는데, 그 축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전에 예수님의 33 회 생일을 축하했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이 가정을 갖고 43 세 (어머님의 회갑 2003 년) 될 때까지 완전한 세계적 기반을 이루어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입니다」(「패밀리」 1993 년 9 월호, 35 쪽)

참아버님은 2001 년 1 월 13 일, 청평에서 「하나님왕권즉위식」을 거행하시고, 「천일국시대」를 선포. 「천일국」으로 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 년 1 월 13 일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왕권 즉위식을 했는데, 천일국 1 년, 2 년, 3 년에 들어와 가지고 부모님의 생신을 중심삼고 어머님의 60 세에, 원래 선생님 60 세 될 때인 이것을 80 년대에 해야 할 텐데 연장해 가지고 어머님 60 세 넘어서는 61 세를 맞이하는 환갑 때 있어서 새로운 천주·천지부모가 하나돼 가지고 성혼식을 할 수 있는 기념의 날로 책정해서 거행한 것이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이라구요. 천일국개문축복성혼식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천일국 가정에 있어서 참부모가 왕의 자리에 즉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부모가 왕의 실체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비로소 천주·천지부모가 천지인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들딸 사위기대를 안팎으로 갖추 수 있는 이 가정이 서 가지고 비로소 통일의 출발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영계 전체, 낙원과 지옥을 철폐하고 천국까지 문을 열고 심정적 일체권이 되는 것입니다」(『후천시대의 신앙생활』 59 쪽, 428-24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3 년은 참어머님의 환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결혼식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라면 거행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결혼식」이며, 아버님은 「혼인신고」「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결혼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부인의 모습으로 현현하게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패밀리」 2003 년 5 월호, 25~27 쪽).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은 **하나님의 실체**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참아버님은 2010 년 2 월 14 일, 제 43 회 「참하나님의 날」「하나님왕권즉위식 9 주년」에 천력을 발표하시고 「천기」로 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45 년에서 7 년동안인 1952 년에 끝날 것인데 기독교와 가인 아벨의 나라가 종교들이 하나 되어 문충재를 반대해서……역사가 연장된 것입니다. 2013 년 1 월 13 일은 천일국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섭리에 걸려 있는 날까까지 그 기간 내에 교육완료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2010년 2월 14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논한 것처럼 참아버님은 참어머님과 더불어 「천기」 「성약시대」 「천일국시대」 「천기」를 세어 나왔는데, 「2013년 1월 13일은 천일국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께서 「기원절」에 「천일국 원년」을 발표하시고, 그때부터 「천일국」으로 세어 나가는 것은 아버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14) 「성서 가운데 메시아가 죽은 후에 여성이 상속한다고 쓰인 곳이 없다」 고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어떤 사람은 「성서 가운데 메시아가 죽은 다음 여자가 상속한다고 써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성화 후 축복가정을 비롯한 식구를 지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서에 대한 “무지”가 낳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영적 참어머니인 「성령(성신)」이 신도들을 인도하고 지도해 가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써여 있으며, 게다가 「성령(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 전서 12·3)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 후, 성령(성신, 영적 참어머니)이 신도를 인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16~26).

또 부활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령(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 이후는 성령(성신)이 예수님과 더불어 기독교인을 인도해 가게 되었습니다.

「원리」에서 가르쳐 주듯이 영적 참어머니인 「성신(성령)」을 통해서만,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중생됩니다. 전술한 것처럼, 성서에는 「성령(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며, 나아가 「성령(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디도서 3·6)고 써여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의 역사는 참아버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어머니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32)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육신생활에서 실체의 참어머니를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 후 영적인 참어머니인 성령(성신)과 더불어 「영적 중생」의 역사만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영적 구원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주이신 참아버님은 실체의 참어머니를 복귀하시고, 원죄를 청산하는 길

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약시대, 천일국시대를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예수 재림 이후의 완성 성약시대는 아내의 시대요, 따라서 암소의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암소는 곧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291 쪽)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사하는 의미 깊은 뜻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과 성신이 인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 「2013년, 기원절 축복 반지에 어머니의 이름만 각인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형진님은 「2013년, 기원절 축복 때 이러한 것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축복 반지 안쪽에 어머니의 이름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축복 반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라고 하며 참어머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들도 「어머님의 사인을 넣은 것은 『저주를 삼킬』 하고 있다. 당장 빼서 각인을 지우기 전에는 몸에 지니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이 비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무책임한 비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반지에 각인된 참어머님의 사인(사진참조)은 참부모님의 “정식인가”를 어필하기 위해 반지 제작사가 넣은 것입니다. 반지회사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 참부모님께서 반지 디자인을 정해 주실 때 어머니가 이것이 좋다고 해주셔서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 디자인으로 반지를 제작했는데, 2013년, 더욱 싸게 반지를 판매하는 비공식회사와 경쟁하게 되어 정통성을 어필하기 위해 주신 사인을 각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어머님 이름을 각인한 것은 2007년경 참어머님께서 디자인을 선택하였을 때 어머니께서 사인하신 문자를 반지회사가 그 정통성을 어필하기 위해 각인한 것입니다. 참아버님의 이름이 지워진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축복반지에서 지워졌다」고 하는 비판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지회사가 이 반지는 참부모님께서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어필하기 위해 각인한 것입니다.

이 축복반지는 참아버님과 참어머님, 두 분이 결정해 주신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저주를 삼킬』 하고 있다. 당장 빼서 각인을 지우기 전에는 몸에 지니지 말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비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16) 「한남동의 부모님 사진을 전부 내리고 어머니 사진만 걸었다」고 하는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 측 사람들은 「한남동에 부모님 사진을 전부 제거하고 어머니 사진만 걸려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사람의 블로그에는 기원절 사진이 걸려 있

2.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주..2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생츠퍼리교회 측이 비판에 사용하고 있는 사진에는 없지만 제물이 있는 정면 쪽에는 참부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는 장면을 소개하고 **【사진 1 참조】**, 「그 사진은 한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문 씨 소유의 건물에서 거행된 예배 (「성화한 참자녀님 축도예배」) 의 한 장면입니다. ……박인섭 씨 위에 걸려 있는 초상화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자 씨만 있고 문선명 씨는 없다! 분명히 사라졌다」 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판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비판하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한남동 (한남국제연수원) 의 각 방에 참부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2 ~ 7 참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반한 비판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17) 「가정연합」 마크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응답

생츠퍼리교회 측의 사람들은 가정연합 마크에 대하여, 이것이 요한계시록 17 장에 나오는 「붉은 빛 짐승」 을 표시하는 마크라고 비판합니다. 요한계시록 17 장 3 절에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알곡 머리와 열 뿌리가 있으며」 라고 써여 있는데, 이것이 가정연합 마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연합 마크는 통일마크와 마찬가지로 참아버님께서 정해 주신 천적인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2003 년 2 월 6 일, 참아버님께서 「하나님의 결혼식」 이라고 하시거나 「두 번째 성혼식」 에 있어서 참부모님은 통일마크와 더불어 가정연합 마크를 걸고 계십니다 **【사진 8 참조】**. 가정연합 마크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을 정하신 아버님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18) 기타 비판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참아버님의 의향

① 아버님은 어머니를 절대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

「전통은 단 하나! 참아버님을 중심삼고! 다른 누군가의, 어떤 말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말씀과 선생님의 원리 말씀 외에는 어떤 말에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을 중심삼고 어머니를 세웠습니다. 선생님이 영계에 간다면 어머니를 절대중심삼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가는 길은 아버님이 지금까지 세운 말씀과 설교집을 중심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 1995 년 하계호, 68 쪽)

「내가 죽더라도 (어머님께는) 통일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설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그러한 때는 (어머님께) 절대복종……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자기 1 대에 이 복잡한 한의 고개를 모두 청산한다고 하는 결심이, 나보다도 어머니가 더 강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70 이 넘었는데, 쓰레기통 가까이 가 있는

데, 어머님은 지금 쓰레기통을 수습해서 그것을 모두 청소할 수 있는 주인이 되었으므로, 선생님보다 어머님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통일교회 식구가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참부모님의 생애노정⑩』 351~352 쪽)

② 참어머님은 「제 2 교주」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어머니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 지장없다 그 말이라구요. 지금까지는 여자가 하늘땅을 대표한 섭리의 대표자로 설 수 없었는데,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삼고 일체적 이상을 중심삼고 어머니 중심삼은 여성 전체 해방권이 지상 위에 선포된 것이 오늘 아침 식전이였다 그거예요. ……자, 30 세 되어서 여성 해방을 선포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레버런 문이 고회를 지나고 70 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안 나와?』 하는 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제 1 교주,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 2 교주다 이거예요」(말씀선집 201 - 126)

「어머님 중심삼고 여러분이 일체가 되어서 나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없더라도 어머니가 대신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한다구요. ……그렇게 알고 어머님을 선생님 대신 모시는 이런 마음을 가져 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구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다 이랬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머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여자들이, 특히 미국의 여자들이 잘 해야 되겠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1 교주라면 어머니는 제 2 교주로서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으로 선포합니다」(『참부모의 절대가치와 종족적 메시아의 길』 116~117 쪽, 말씀선집 265 - 310)

「어머님은 내 그림자와 같습니다. 붙어 다니는 그림자와 같으므로 나는 실체를 가진 주체의 교주고, 어머님은 대상의 교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 1 교주, 어머님은 제 2 교주입니다. 무엇을 중심삼고입니까? 사랑을 중심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동, 116 쪽)

「선생님이 영계에 갔다고 해도 어머님이 지상에 있으면 영계와 지상계의 통일권이 되므로 언제든지 어머님이 있는 지상에 와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교회 멤버 가운데 그러한 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영계에 갔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있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117 쪽)

참아버님은 성화 후, 참어머님에게 와서 같이 생활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자녀님에게 온다고 하시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영계에서 오셔서 생활한다고 하신 어머님을 중심으로 일체화해 가야 합니다.

③ 참부모는 영원히 하나다

「참부모님은 오직 하나예요. 이때 단 한 번뿐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육신을 쓰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이때뿐이라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딱 한 번입니다」(말씀선집 246 - 84)

「선생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영원히 이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하나라구요. 선생님이 저세상에 가면 끝이라구요. 영원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상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모든 것은 천하의 진리로서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동, 229 - 161)

「참부모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부모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역사의 소원이요, 국가의 소원이요, 사상의 소원이요, 섭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나타나는 때는 전무후무한 때요,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제일 꼭대기입니다」(8 대교 재교본 『천성경』 230 쪽)

「참부모라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무후무한 참부모가 현현한 시대가 성약시대라는 것입니다」(동, 2400~2401 쪽)

「참부모라는 것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고, 지금 하나 있고, 후대에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부모의 이름을 갖춘 참부모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역사상 이 이상 기쁠 수 있는 놀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말씀선집 266 - 251~252)

이처럼 참부모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아버님은 「후계자……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리강론』에 「예수 이후에는 예수님과 성신이 직접 성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435 쪽)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는 영적 참부모이신 예수님과 성신(성령)이 일관하여 신도를 인도했습니다. 미래 영원히 이어지는 천일국에서는 전무후무한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 한학자 부인이 일관하여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들은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생츠퍼리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정가(本体 100 円 + 세금)

2017년 11월 15일 초판 제 1쇄 발행

發 行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發 売 株式会社 光 言 社
〒 150-0042 東京都渋谷区宇田川町 37-18
電話 03 (3467) 3105
<https://www.kogensha.jp>

印 刷

©FFWPU2017 Printed in Japan

乱丁・落丁本はお取り替えいたします。